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박효일(왼쪽부터), 김성민, 노관현, 최정민, 최승주가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ool@

KIA 왕조 구축 박차 '내야는 고민 중'

유격수, 김선빈 발목 수술 재할 집중... 고장혁 입대

2루는 경쟁 치열...3루, 이범호 대체자 찾기 나서야

군견한 타이거즈 왕조의 구축, 내야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8년 만에 우승을 이루며 'V11'의 역사를 만들었다. '챔피언' KIA에게 주어진 과제는 강팀으로 면모를 이어가는 것이다.

KIA는 지난 2009년 12년 만에 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뤘지만 팀 체질 개선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탄탄하지 못했던 선수층과 내부 에너지를 한데 모으는데 실패하면서 2년 연속 8위로 시즌을 마감하는 등 우승 후보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이어왔다.

올 시즌 우승과 함께 강팀으로 군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됐다. 예년보다 탄탄해진 선수층과 우승 멤버들의 무게감은 내년 시즌에도 KIA를 우승 후보로 꼽을 만 하다. 그러나 내년 시즌과 그 이상까지

살펴보면 내야가 고민이다.

KIA의 아킬레스건은 유격수다. 올 시즌에도 고민 많은 자리였다. '예비역' 김선빈이 최고의 활약을 하며 수위 타자까지 차지했지만 김선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강한올이 FA 보상선수로 삼상으로 이적했고, 박찬호는 군복무를 위해 떠났다. 김주형과 김지성의 유격수 투입 결과가 좋지 못했고, 최원준도 타격 실력에 비해 부족한 수비가 부담이었다. 또 백업 요원으로 역할을 해줬던 고장혁이 경찰청 입대를 앞두고 유격수 고민은 계속된다.

여기에 김선빈의 발목이라는 또 하나 변수가 있다. 김선빈은 시즌이 끝난 뒤 뱃조각 제거 수술과 외측 인대 봉합 수술을 받았다. 큰 수술은 아니지만 예년과 달리 재활에 초점을 맞춰 시즌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겨울 왼 허벅지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던 김주찬도 예상보다는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며 정상적으로 시즌은 출발했지만 제 기량을 보여주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3루 고민도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3루에서 든든한 역할을 해왔던 이범호도 내년이면 서른여덟이 된다. 올 시즌 중요한 순간에 수비 실수를 하는 등 이범호의 대체자를 찾아야 하는 시간이 됐다. 그나마 3루수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김주형도 지난해와 다른 올 시즌을 보내면서 몸값표를 남겼다. 안치홍이 버티고 있는 2루는 그나마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자리로 큰 고민은 없다.

KIA는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 내야진 구축에 힘을 쏟았다. 강도 높은 타격 훈련은 물론 수비에서도 김민우 코치의 1대1 특별 지도가 이뤄졌다. 일단은 수비를 맡아줄 백업 요원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유망주'들이

다. 성장 가능성이 높고, 미래 주축 선수로 될 수 있는 자원들이라는 평가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다.

캠프에서 유격수 자리에 서서 테스트를 받은 선수는 '이적생' 노관현과 고졸 2년 차 김성민이다. 노관현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3루수로 주로 뛰었던 노관현은 KIA에서도 3루수로 나와 프로 데뷔 안타를 기록하기도 했다. 새로운 포지션인 만큼 처음부터 기본기를 배우는 중이다.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KIA는 지난 2차드래프트를 통해서 SK 최정용과 NC 황윤호를 선택하면서 유격수 고민 풀기에 공을 들였다. 최정용이 상무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황윤호는 이번 캠프에서 직접 실력을 점검하지는 못했다.

KIA는 29일 캠프의 훈련 일정을 마무리하고, 30일 귀국한다. 미래를 엿본 KIA가 2018시즌을 어떻게 설계할 지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롯데, 민병헌도 품었다... 4년 80억

롯데 자이언츠가 28일 두산 베어스에서 FA(자유계약)로 풀린 민병헌과 4년 총액 80억원의 조건에 계약했다.

덕수정보고를 졸업한 민병헌은 200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2라운드 전체 14순위로 두산에 입단해 곧바로 프로에 입문한 리그 정상급 외야수다.

경찰청 야구단에 복무한 2010~2012년을 제외하고 두산 유니폼만을 입었던 민병헌은 롯데에서 제2의 야구인생을 시작한다.

민병헌의 프로 11시즌 통산 성적은 10%경기에서 타율 0.299(312타수 93안타) 71홈런 444타점 578득점 156도루



다. 올 시즌에는 123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4(447타수 136안타) 14홈런 71타점을 작성했다. 5년 연속 3할 타율을 유지했고, 4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쏘아 올렸다.

롯데는 앞서 지난 26일 내부 FA이자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최대어로 손꼽힌 외야수 손아섭과 4년 총액 98억원에 계약하면서, 손아섭-전준우-민병헌으로 이어지는 최강의 외야진을 구축하게 됐다. /연합뉴스



6관왕 이정은 모자를 잡아라

후원계약 만료... 여자골프 스토브리그 '후끈'

'새로운 골프 여왕의 모자를 잡아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대상 시상식에서 사상 초유의 6관왕에 오른 이정은(21)을 놓고 기업 간 눈치 보기가 시작됐다.

이정은은 올해 말로 후원사인 화장품 전문 기업 토니모리(2)와 2년 계약이 만료된다. 업계에서는 내년에는 다른 기업 로고가 이정은의 모자 정면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토니모리는 지난 2015년 이맘때 연간 1억2000만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에 이정은을 잡았다. 당시 이정은은 많은 새내기 유망주 가운데 한 명이었던 뿐이었다. 신인 후원 계약금 순위에서도 5년째에 불과했다.

이정은이 올해 4승을 쓸어담으며 상금왕, 대상, 다승왕, 평균타수1위 등을 휩쓸자 이정은의 몸값은 폭등했다. 이정은은 실력 뿐 아니라 외모나 품성도 빼어나 인기가 높다. 더구나 이정은은 당분간 해외 진출을 앞둔다고 여러차례 공언해 국내 마케팅에 활용도가 높아 기업들에게 매력적이다.

이정은을 잡으려면 지난해 하이트로 후원사를 옮긴 고진영(22)에게 준 금액보다 더 불러야 한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안팎의 중견기업 토니모리가 이정은은 다시 잡기

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정은과 함께 올해 선수 후원 시장에 서 큰 관심을 끄는 선수는 전인지(23)다. 올해 모자 정면을 빈칸으로 남긴 채 시즌을 마친 전인지는 지난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후원 계약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정은, 전인지 뿐 아니라도 올해 여자골프 스토브리그는 제법 열기가 뜨겁다. 올해 챔피언 가운데 유난히 후원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가 많다.

올해 3승을 거둔 김해림(28)과 KLPGA 챔피언십 우승자 정수연(23), '지천 천하'의 한 축을 맡았던 김지현(26) 등이 롯데와 올해 계약이 끝난다. 2014년 데뷔 이래 해마다 1승씩은 코박 코박 손에 넣은 장타 여왕 김민선(22)도 시장에 나온다.

부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우승으로 부활을 알린 김자영(26)과 화려한 장타력을 앞세워 NH투자증권 레이디스오픈을 제패한 김지영(21),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지한솔(21)도 후원사와 계약이 만료된다.

작년까지 통산 8승을 올린 이정민(25)과 통산 3차례 우승한 조윤지(26), 통산 4승의 베테랑 김보경(31), 그리고 3승을 기록한 허윤경(27) 등도 새로 후원사를 찾아야 한다. /연합뉴스

아버지만큼 잘하네... 2세 전성시대

KBO 신인왕 백선 이정후

■ '레전드 아빠'와 아들

아버지 이종범과 어깨 나란히
허재 두 아들 농구 국가대표

스포츠계는 바야흐로 '2세 전성시대'다. 1980~1990년대를 풍미했던 프로스포츠 스타들의 2세들이 아버지 못지않은 실력으로 새시대의 문을 열고 있다.

프로야구 이종범 해설위원의 아들 이정후(19·넥센 히어로즈),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의 아들 신재원(19·고려대), 농구대표팀 허재 감독의 아들 허웅(24·상무)과 허훈(22·kt) 등 '레전드 아빠'를 둔 2세 선수들이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프로야구에는 2세 선수가 흔했다. 경찰청 유승안 감독의 아들인 유원상(NC 다이노스)과 유민상(KIA 타이거즈), 박종훈 한화 이글스 단장의 아들인 박운(넥센), 이순철 해설위원의 아들 이성근(삼성 라이온즈) 등 각 2세 야구선수를 찾기가 비교적 쉬웠다.

그러나 대부분 2세 선수들은 아버지의 기량과 기록을 넘지 못했고, '00의 아들'이란 수식에도 견어내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이정후는 특별하다. 그는 프로에 데뷔한 올 시즌 아버지 이종범 해설위원이 거둔 데뷔 시즌 성적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정규시즌 144경기에 모두 출전해 타율 0.324, 2홈런, 47타점, 111득점, 12도루를 올렸다. 신인 최다 안타와 득점, 고졸 신인 선수 최초의 전 경기 출장 등 다양한 기록을 세우며 신인상 트로



이종범 (해설위원) '바람의 아들'



허재 (농구대표팀 감독) '농구 대령'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 '그라운드 여우'



이정후 (넥센) KBO 신인왕·신인 최다안타·득점 고졸 신인 최초 전 경기 출장



허웅 (상무) 데뷔 2년·팀 주축 국가대표 발탁



허훈 (kt) 신인드래프트 1순위 국가대표 승선



신재원 (고려대) U리그 왕중왕전 결승골

피를 거머쥐었다.

이종범 위원은 1993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프로 첫해 타율 0.280, 16홈런, 53타점, 85득점, 73도루를 올렸다. 그가 출친 73개의 베이스는 신인 최다 도루 기록으로 남아 있지만, 신인상은 양준혁(당시 삼성)에게 밀려 받지 못했다.

'농구대통령' 허재 감독의 두 아들도 한국 농구의 대들보로 성장하고 있다.

장남 허웅은 데뷔 2년 차인 2015~2016 시즌 원주 DB에서 54경기에 출전해 평균 12.1점, 2.8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2016-

2017시즌에도 54경기에서 평균 11.8점을 넣으며 주력 선수로 발돋움했다.

동생 허훈은 올해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부산 kt에 입단한 뒤 형과 함께 아버지가 이끄는 국가대표에 승선했다. 허웅과 허훈은 최근 2019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기대 이상의 기량을 선보였다.

차범근-차두리 부자로 대변되던 축구 2세 계보는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과 아들 신재원이 이어받는 분위기다.

신재원은 지난 24일 U리그 왕중왕전

전주대와 결승에서 우승을 확정하는 역전 결승골을 넣으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해 20세 이하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할 때 아들을 뽑지 않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부모와 다른 종목을 택한 2세 선수들도 많다. 프로야구 KIA 투수 한승혁(24)의 아버지는 배구 국가대표 출신 한장석 전 대한항공 감독이다. 한국과 중국의 탁구 국가대표 출신 안재형-자오즈민 부부의 아들인 안병훈(26)은 골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KIA '사랑의 쌀 나누기' 봉사 활동

내달 1일 북구 임동 235가구·지역아동센터 3곳에

KIA 타이거즈가 사랑의 쌀과 김치, 방한용품 전달로 지역민 사랑을 실천한다.

KIA 선수단과 구단 임직원은 오는 12월 1일 오후 1시부터 챔피언스필드 인근의 기초수급 가정과 지역 아동센터에 쌀과 김치,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봉사 활동을 펼친다.

선수단과 구단 임직원은 이날 북구 임동 내 소외계층 235가정과 지역아동센터 3곳을 직접 방문해 20kg들이 쌀 1포대용 김치(3.5kg), 방한용품(이불), 아동용 의류를 전달한다.

'사랑의 쌀'은 KIA 구단이 올 시즌 물품보관할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에 자체 예산을 추가해 마련했다. 여기에 구장 식

음료 업체인 신세계푸드가 김치를, 구단 후원업체인 보해양조가 방한용품을 후원했다.

선수단 상조회장 김주찬은 "한 시즌 동안 지역민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행사를 기획했다"며 "비록 많은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지만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KIA 관계자도 "앞으로도 선수단과 함께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따뜻한 활기찬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